

# 에슬레저 열풍 쪽!... 안다르·젝시믹스, 글로벌 전략 통했다

해외 진출이 이끈 3분기 호실적  
안다르, 3분기 영업익 170% 급증  
제품 다변화로 글로벌 성장 가속  
젝시믹스, 3분기 해외 실적 77% ↑  
현지화 전략으로 성공 사례 구축

국내 에슬레저 브랜드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안다르와 젝시믹스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2분기 성장이 사업 다각화 전략의 성과였다면, 3분기 실적에는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안다르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0% 오른 122억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 역시 7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젝시믹스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젝시믹스의 모회사 브랜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액은 65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6% 올랐다.

안다르와 젝시믹스는 지난 2분기에



안다르 러닝 제품 모델 착용.

안다르

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안다르는 지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영업이익 105억원을 달성했다. 젝시믹스 역시 영업이익 119억원을 달성하며 같은 기간 대비 136% 상승했다.

지난 2분기 두 에슬레저 기업의 실적을 견인한 주요인은 제품 영역의 다변화 전략이었다. 안다르는 올해 상반기 언더웨어로 제품 시장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스웬웨어, 테니스웨어의 남성(맨즈)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매출 성장을 도모했다.

젝시믹스도 신규 제품군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2분기 실적 성과를 달성했다. 젝시믹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분기 전년 대비 남성제품 카테고리 매출액이 89% 상승했으며, 골프 제품군 역시 같은 기간 대비 142% 매출액이 증가했다.

2분기에서 이어진 3분기 3분기 호실적에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 비중 있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안다르는 지난 8월 일본 나고야에 팝업스토어를 열며 글로벌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도쿄와 오사카 팝업에 이어 세 번째 팝업스토어로 행사 기간 동안 오픈런은 물론 운영 기간 대기 줄이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안다르 단독 2호점을 오픈하며 글로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젝시믹스도 공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으로 3분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해외 현지 매장 등의 운영을 통해 해외 실적이 전년 대비 77% 이상 성장했다는 게 젝시믹스 측 설명이다. 젝시믹스는 중국 7개, 일본 4개 정식 매장을 포함해 해외 총 2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안다르 관계자는 “안다르는 전략적으로 에슬레저 타깃 고객층이 넓은 고소득국가 중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했다”며 “해외 시장에서 안다르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력사업에 매진하며 또다시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만들어냈다”며 “기업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대용제약

### ‘먹는 비만약’ 개발 속도

대용제약이 주사제 중심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먹는 비만약’ 개발에 역량을 쏟는다. 대용제약은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중 작용제’ 신약 물질을 발굴하고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대용제약에 따르면, GLP-1과 GIP는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상승을 막고, 뇌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한다. GIP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지방 에너지 소비를 촉진한다.

이처럼 이번에 발굴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은 식욕 억제와 지방 연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기전을 갖춰, 비만 치료제의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용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용제약은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를 이중으로 표적하면서도 저분자로 이뤄진 ‘경구용 이중 작용제’를 개발해 기존 치료제들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계획이다. 저분자 기반으로 개발할 경우 고분자 기반 의약품 보다 생산이 용이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용제약은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인 ‘알약’ 형태로 처방한 비만 치료제가 환자들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복용 순응도, 만족도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K뷰티 디바이스 경쟁 심화... 브랜드별 기술력 격돌

에이피알, 휴대성·가성비 강화  
파마리서치, 온라인 유통망 확대

‘뷰티 디바이스’ 인기가 지속되며 제품군들의 각축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포화된 시장이지만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아지면서 연령대와 구매력에 따른 브랜드 출시는 계속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신제품으로 부스터 프로 미니를 공개했다. 에이피알 대표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의 핵심 기능을 집약하면서 휴대 가능한 편리함과 합리적인 가격을 고루 갖춘 실속형 제품이다.

‘부스터 프로 미니’에 탑재된 부스터 기능은 피부 광채 개선에 집중했다. 에



메디큐브 에이피알 신제품 ‘부스터 프로 미니’는 핑크와 화이트 두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에이피알

이피알이 독자 개발한 피부에 전기 진동을 주는 전기전공법 기반 기술이 활용됐다. 에이피알은 부스터 프로 미니

가 1회 사용 시 최대 270만 회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화장품 유효성분 흡수율을 손 사용 대비 약 5배 높인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은 부스터 프로 미니 판매가를 10만원 초반대로 설정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3분기 에이피알 뷰티 디바이스 사업 매출은 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뷰티 디바이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분기 판매량은 33만 4000대로, 처음 30만대를 넘어섰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은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는 최근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신제품을 내놓으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달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31일 네이버

라이브 마켓에서 달바의 ‘시그니처 올셰라 더블 샷’은 1시간 만에 조회수 62만, 3일 만에 약 5억원의 매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에스테틱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유통망을 넓혀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10월 CJ온스타일 첫 방송에서 자사 테마 화장품 브랜드 리쥬란 코스메틱의 ‘리쥬리프’가 전량 매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뷰티 디바이스의 인기로 인해 ‘뷰티 테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장 환경”이라며 “브랜드마다 높은 제품력에 가격 경쟁력까지 더하고 있다보니 이미 포화된 시장이면서도 소비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SK바이오팜, 방사성의약품 연구 역량 강화

SK바이오팜은 지난 18일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약티늄-225(Ac-225) 기반의 방사성의약품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연구 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 최초이며,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방사성의약품 기반의 혁신적인 전임상 후보물질을 1건 이상 도출하고 새로운 암 치료 타겟에 대한 유효물질을 발굴할 계획이다.

약티늄-225는 강력한 알파 입자를 방출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효과를 지닌 방사성 동위원소로, 차세대 암 치료제 개발의 핵심 물질로 주목

받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테라파워사와 약티늄-225 공급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했으며, 이미 이 중 일부를 들여와 현재 전임상 연구에 돌입한 상태이다.

SK바이오팜은 최근 방사성의약품 사업 로드맵 발표에서 오는 2027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통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리딩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SK바이오팜은 2027년 임상 허가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며, 방사성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의 경쟁우위를 선점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유효성 입증

美 학회서 약템라·프롤리아 3상 발표

셀트리온은 2024 미국류마티스학회 연례회의(ACR)에서 약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과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의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를 추가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류마티스학회는 전 세계 최대 류마티스학회 중 하나로 올해 연례회의는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먼저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RA) 환자 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T-P47 글로벌 임상 3상 52주 결과를

통해 CT-P47 교체 투여(switching) 환자군서 유효성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CT-P47 투여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 두 그룹으로 나눠 24주 동안 치료하고, 24주차에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을 CT-P47로 교체 투여한 환자군과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 유지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이후 52주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CT-P47로 교체 투여한 환자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 유지군, CT-P47 투여 유지군 등 세 그룹 간 2차 평가지표에서 유효성, 약동학, 안전성, 면역원성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청하 기자